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전공의 모집...필수인력 충원 ‘관심’

전대 인턴 108명·레지던트 282명

조대 인턴 35명·레지던트 124명

21일까지...“사직 수련의 복귀 기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충원에 나섰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복귀 기회를 부여 하면서 광주 상급종합병원이 필수인력을 확보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2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전남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상급연차·레지던트 1년차·인턴) 공개 채용 공고’를 냈다.

인턴의 경우 전남대병원 60명, 화순전남대병원 32명, 빛고을전남대병원 6명, 기타 자병원 성가톨릭병원 6명, 여수전남병원 2명, 여천전남병원 2명 등 총 108명이다.

전남대병원은 이번 하반기 모집에 한해 지난해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과목에 다시 합격한 전공의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모집 인원보다 합격 예정인 원소속 복귀 인원이 적은 경우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

레지던트 1년차는 전남대병원·화순병원·성가톨릭병원을 합쳐 내과 20명, 소아청소년과 5명, 신경과 2명, 외과 7명, 정형외과 5명, 산부인과 5명 등 총 92명과 별도정원 10명을 모집한다.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는 해당과목 2024년도 정원 중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한다. 내과 31명, 소아청소년과 11명, 외과 9명, 산부인과 9명, 마취통증의학과 15명, 응급의학과 12명 등 총 180명이다.

조선대병원도 하반기 인턴을 35명 뽑는다. 필기시험은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같은 한다.

레지던트 1년차는 45명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시작한 전공의가 동일 과목에 지원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레지던트 상급연차는 응급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총 79명을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허용함에 따라 이번 채용에선 지원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력이 충원되면 큰 폭으로 줄었던 입원·외래 진료도 점차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상급종합병원들은 지난해 말 2025년도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으나 지원자는 극소수에 그쳤다.

당시 전남대병원은 수련평가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105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단 2명이었다. 같은 기간 조선대병원도 레지던트 1년차 47명을 선발하는 공고를 올렸으나 지원자는 전무했다.

/기수희 기자



“장수 요인 파악” 전남대병원, 고흥서 ‘100세인 연구 조사’

전남대병원이 장수 지역인 고흥에서 100세인 연구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대학교병원 한국백세인연구단은 지난 11일 고흥군청 팔영산실에서 ‘백세인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연구조사발대식’을 열었다. <사진> 발대식에는 박상철 전남대 석좌교수, 윤경철 전남대 노화과학연구소장, 한재영 전남대 노인

의학센터장이 참석해 노화와 건강, 장수 비결 파악 등 연구 방침을 설명했다.

노화과학연구소는 고흥에 사는 95세 이상 어르신 65명을 개별 인터뷰해 개인적 특성과 생활 환경을 분석하고 장수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진은 2주간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흥은 지난해 말 기준 95세 이상 주민이 367명으로 65세 이상 노인(2만7천784명) 대비 1.3%를 차지한다.

지난해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서는 2023년 기준 100세 이상 노인이 인구 10만명당 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수희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보행재활 로봇’ 도입...“맞춤 치료 강화”

‘휴카고’ 체중 지지 안정적 훈련

보행 속도·보폭 세밀 조정 가능

“자연스러운 걸음걸이 회복 도움”

화순전남대병원이 첨단 보행재활 로봇 ‘휴카고’(HUCA-Go)를 도입, 본격운영에 들어갔다.

12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로봇 ‘휴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로봇 보조 정형용 운동 장치이다. 중추신경계 질환·운동 장애로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의 체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정상 보행 패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효과적이다.

‘휴카고’는 발판에 장착된 장치가 환자의 보행 의도를 실시간 감지해 보행 속도와 보폭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체중부하 조절 기능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활 훈련 환경을 구현한다.

특히 이 로봇은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 구매사업’에 선정돼 공공 의료기관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혁신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해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제도로, 환자 맞춤형 재활 치료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 훈련 모드는 ▲자동보행 모드(스마트·



이루지(사진 왼쪽) 화순전남대병원 재활의학과가 첨단 보행재활 로봇 ‘휴카고(HUCA-Go)’를 활용해 환자 맞춤 치료를 하고 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공>

매뉴얼) ▲보행보조 모드(엑티브-어시스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환자의 보행 수준에 맞춘 단계별 훈련이 가능하다. 비상 정지·자동 멈춤 기능도 갖춰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루지 재활의학과장은 “로봇 재활 훈련은 기존 치료보다 자연스러운 걸음걸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체중 지지 기능으로 안전성을 높여 환자들의 심리적 불안감도 줄일 수 있

다”고 밝혔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보행 재활 로봇 도입은 중증 재활 환자 치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첨단 장비와 전문 재활 시스템을 결합, 환자 개개인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가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도 최신 재활 기술을 적극 도입해 환자 중심의 재활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광주기독병원 ‘아이스크림 데이’ 진행

광주기독병원은 12일 “더위에 지친 병원 직원들을 위해 최근 로비 제증역사관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아이스크림 데이’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무더운 날씨에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이벤트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직원들은 각자 취향에 맞는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으며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승욱 병원장은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작은 이벤트이지만 잠시 더위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직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병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